

※ 外感內傷

	外感	內傷
오한(惡寒)	센불을 가까이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음.	점점 따뜻함으로 나아가면 곧 없어짐. 다만 풍한(風寒)을 싫어함.
오�풍(惡風)	일체의 모든 풍한을 견디지 못함.	사소(些少)한 문바람(賊風)도 몹시 싫어하지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방으로 옮기면 없어짐.
발열(發熱)	쉬지않고 계속 열이 나다가 해질 무렵에 가서 더욱 세게남. 땀내거나 하법을 쓰면 열이 내려감.	때때로 열이 났다 내렸다 하며 혹은 스스로 옷을 벗으려하고 또한 淸涼한 것을 좋아함.
신통(身痛)	힘줄과 뼈가 아프고,(筋骨疼痛) 혹 모든 뼈마디가 다 아픔.(百節皆通)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不收) 기운도 없고,(無氣) 나른하여 눕기 좋아함.(困怠)
두통(頭痛)	계속 아픔.(常常) 병이 전경(傳經)되거나 속으로 들어가면 멎음.(方罷)	때때로 아팠다 그쳤다 함.
기력(氣力)	邪氣가 유여(實)하므로 힘이 있음.	정신이 흐릿하고 나른하며,(神思昏怠) 기력이 약하여 피곤.(氣弱困憊)
손(手)	손등에 열	손바닥 열
번갈(煩渴)	사기가 전경되어 속으로 들어가면 몹시 갈증이 남.(大渴)	사기가 혈맥 가운데 있으므로 갈증이 없고, 있어도 심하지 않음.
구미(口味)	먹지 못하나(不能食) 음식의 맛은 앎.	비록 음식은 먹으나 맛을 알지 못함.
호흡(鼻息)	코가 막히고,(鼻塞) 콧물 흐르며,(流涕) 목소리가 무겁고,(聲重) 기도가 막혀 숨쉬기 어려움. (氣壅)	원만히 숨을 쉬지만 고르지 못함.(不調)
언어(言語)	말소리가 높고 힘이 있으며, 처음에는 가볍다가 나중에는 무거움.(先輕後重)	말소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며, 말하기 싫어함.(懶於言語)
맥상(脈候)	인영맥이 부긴(浮緊)하거나 홍대삭.(洪大而數)	기구맥이 긴성(緊盛)하거나, 활(滑)하면서 빠름.(疾)

cf)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왼쪽 손구 부위에서 뛰는 맥을 인영맥이라 하고, 오른쪽 손구 부위에서 뛰는 맥을 기구맥(氣口脈)이라 하기도 함.